



호랑이해를 맞아 KIA 타이거즈의 '호랑이 삼형제' 윤석민·곽정철·이대진(왼쪽부터)이 우리동물원 아기 호랑이 '아이-러브-기아'와 포즈를 취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랑이 삼형제
호랑이해 11 쏜다



이대진·윤석민·곽정철

2010

타이거즈 마운드 호령

'호랑이 삼형제'가 2010시즌 KIA 타이거즈 마운드를 수호한다. 2010년은 경인년(庚寅年) 호랑이해. KIA 투수 이대진·윤석민·곽정철은 경인년이 반가운 호랑이띠 선수들이다. 입단동기인 1986년생 윤석민과 곽정철은 돌도 없는 친구. 12년 터울의 1974년생 이대진은 이들에게 하늘 같은 선배이자 존경하는 야구인이다. 세 선수에게 2009시즌은 '질반의 성공'이었다. 우승이라는 짜릿한 순간도 부상과 부진으로 인한 깊은 좌절의 순간도 2009년에 공존했다. 다사다난했던 2009년을 뒤로한 '호랑이 삼형제'가 마운드 점령을 위해 2010년을 달린다.

◇노련미의 이대진

1997년 한국시리즈에서 2승을 거뒀던 '에이스 오브 에이스' 이대진은 2009년 12년 만에 다시 우승시대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다. 기쁨보다 슬픔과 고통이 많았던 12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감격의 순간이었다. 입단과 함께 마운드를 평정했던 이대진은 세 차례 수술대에 오르며 전성기보다 더 긴 재활의 시간을 보냈다. 야구를 버릴 수 없어 타자전향까지 했던 그에게 우승은 선수 이대진은 물론 인간 이대진에게 주어진 값진 선물이었다. 부상으로 미뤄줘야 했던 100승 타이틀까지 거머쥔 2009년, 2군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이대진은 "지난해 2군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우승으로 그 힘들었던 것을 다 보상받았다. 개인 성적이 좋지 않아 아쉬움은 남는다"고 밝혔다. 이대진이 그리는 2010년은 '재활 이후 가장 좋은 한 해'다. 한국시리즈와 한일클럽 챔피언십 등 시즌 막판 좋은 모습을 보였던 터라 자신감은 넘친다. 이대진에게 윤석민과 곽정철은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되는 기특한 후배다. 이대진은 "인성이 착하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장점이 많은 후배들이"며 "즐거는 사람은 이길 수 없다고 한다. 강박관념으로 운동을 하지 말고 목표를 생각하면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보냈다. 강속구는 잃었지만 마운드에 서는 자세로 가슴 벅차고 행복한 이대진. 자신을 믿고 기다려준 팬들이 가슴졸이지 않고 편히 지켜볼 수 있는 경기를 하는 것, 새해를 맞는 노장 이대진의 소망이다.

◇배짱투의 윤석민

2005년 프로무대에 뛰어든 24살의 젊은 청년 윤석민의 지난 5년은 극적이였다. 어린 외모와 달리 겁없이 공을 뿌리며 선발과 중간, 마무리를 오가며 묵묵히 마운드에 올랐다. 2008년에는 14승을 기록하며 평균자책점왕(2.33)에도 올랐다.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윤석민은 WBC에서는 베네수엘라 강타선을 제압하며 세계 야구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우승 삼패인도 터트려왔다. 마운드에서 거칠 것 없는 '국민 에이스' 윤석민의 새해 욕심은 화려한 트로피도 타이



틀도 아니다. 윤석민의 간절한 외침은 '풀타임을 뛰고 싶어요'! 150km가 넘는 강속구와 매서운 슬라이더, 변화무쌍한 체인지업 등 '윤석민표 변화구'로 거침없이 달렸지만 부상이라는 암초를 만나곤 했다. 2009년에도 부상병이 되어 잠시 마운드를 떠나야 했다. 윤석민은 "154와 3분의2이닝이 한 해 최다이닝인데 새해에는 아프지 않고 더 많은 이닝을 뛰고 싶다"고 밝혔다.

2010년에는 아시안게임이 기다리고 있다. 윤석민은 "대표팀이 되면 힘든 점이 많지만 국가대표로 많은 걸 얻었기때문에 다시 부름을 받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부상의 악몽을 이겨낸 이대진과 곽정철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윤석민은 "이대진 선배도 그렇고 정철이도 수월 경험이 있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운드에 섰다"며 "자기관리가 철저한 두 사람을 보면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얘기했다. 부상과의 작별을 고한 윤석민은 특유의 배짱으로 봄을 기다리고 있다.

◇파워피쳐 곽정철

2009년은 곽정철에게 야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었다. 곽정철은 "산에 가면 내리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오르막이 나타나고 험난한 골짜기를 만나기도 한다. 정상에 오른 뒤 더 높은 다른 산의 정상을 볼 수도 있다"며 "야구는 산과 같다"고 말한다.

곽정철의 표현대로 그의 2009년은 산과 같았다. 선발투수로 정상을 향해 달려던 곽정철은 생각치 못했던 골짜기를 만났다.

5월13일 한화전, 4회까지 8점을 뺏아준 타선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7실점으로 5회를 채우지 못하고 좌절했다. 실패는 아팠지만 자만할 수 있었던 자신을 되돌아본 계기가 됐다. 불펜에서 새로 시작한 곽정철은 6월 24·25일 SK와의 이틀 연속 연장전에 등판해 한 뼘 더 자랐다.

곽정철은 "막강한 SK와의 대결이 두려웠지만 재활의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생각하면서 공을 던졌고 승리와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다. 우승의 환호와 신종플루에 걸려 최악의 피칭을 한 한일클럽챔피언십의 실패도 똑같이 소중한 자산이다.

이대진은 곽정철에게 야구 교과서다. 곽정철은 "힘든 재활을 견딘 선배를 보면 늘 내 자신이 부끄럽다. 선배의 조언과 모습은 교과서 답안지 같다"고 말했다.

윤석민은 '야구를 잘하고 싶다'는 열정을 심어주는 스승같은 친구다. 마운드 밖에서는 한없는 개구쟁이지만 냉정한 프로세계에서 힘이 되는 든든한 동반자다.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은 2010년 간절한 소망이다. 그에 앞서 팀의 주축선수가 되어야 하는 만큼 슬라이더와 포크볼을 연마하고 있다.

KIA 최고의 파워피쳐 곽정철이 수싸움이라는 무기를 더해 2010년의 포효를 준비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